광주시 부실시공 뿌리뽑기 시민감시단 활동 대폭 강화

1억원 이상 발주공사 신고포상금제 운영

광주시가 건설공사의 부실 시공을 뿌리뽑기 위해 내년부터 '범시민공동감시단' 활동을 강화하는 등 부실공사 근절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구성돼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시활동을 펴고 있는 '범시민공동감시단'의 활동이 부실공사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감시단 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범시민공동감시단'은 지난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8일 동안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 43곳에 대한 관리활동을 전개해 91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감시단은 토목·건축·기계·전기·소방·조경 등 6개 분야 64명의 전문가 및 시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내년부터 감시단의 활동을 현행 2회에서 3~4회, 감시활동 일수도 30일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시는 또 1억원 이상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관계자 초청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시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제는 부실공사를 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주요 구조부 부실로 붕괴우려가 있어 시급히 재시공해야 할 경우 최고 1천만원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공사를 신고하면 최고 7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주요 구조부 외 재시공이 필요한 부실공사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을,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공사를 신고할 경우는 최고 2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시는 올해 각화IC~호남고속도로 도로개설공사(2회)와 빛고을실버타운 조성공사(1회) 등 100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 2곳에서 현장 설명회를 가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범시민공동감시단'의 활동을 강화하고,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공사 현장설명회를 수시로 가져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이공대 산학협동 졸업작품전 조선이공대 광전자정보학과(학과장 조강석)와 주식회사 라이텍코리아는 3일 공동으로 '산학협동 졸업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양측 관계자 20여 명이 이공대학 2~3호관을 연결하는 구름다리에 삼각대 모양으로 다양한 색을 연출할 수 있는 LED조명 '풀 컬러(full color) 채널레터'를 설치한 후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2007 빛고을사랑 모범인' 대상 후보 14일까지 공모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은 '2007년도 빛고을사랑 모범인' 대상 후보자를 오는 14일까지 공모한다.

대상은 빛고을 사랑운동에 모범이 된 단체 및 시민으로, 추천서·공적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추천 부문은 ▲친절 ▲질서 ▲봉사 등 3개 부문이며 시상식은 오는 20일. 문의 (062) 227-0402.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시 행정혁신인상 공보실 유영춘씨 수상

광주시 공보관실 유영춘(47·행정 6급·사진)씨가 제18회 광주시 행정혁신인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광주시는 '1등 광주' 건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공직자를 발굴, 표창하는 행정혁신인상 18번째 수상자로 공보관실 유영춘씨를 수상자로 선정하고 3일 직원 정례조회시 표창했다.

유씨는 시정의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한 기획기사를 발굴하는 등 시민들이 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평생교육프로그램 주민 66% '만족'

취약계층 참여 늘리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남구청 설문 조사

광주시 남구의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의 절반 이상이 교육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10월5일부터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학습자 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의 65.8%인 316명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다'는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32.5%(156명)였고, '만족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1.6%(8명)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20%는 3개 이상의 교육에 참여했으며, 이중 5.5%는 5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교육이 끝난 후 ▲심화과정 참여(45.2%) ▲봉사나 시민운동 등 사회활동 (24.8%) ▲평생학습동아리 활동(15.5%) 등의 욕구를 느낀다고 답해 높은 교육의지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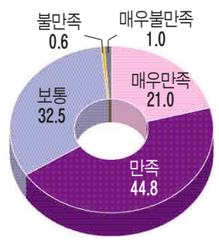
프로그램 참여의 애로사항을 묻는 항목에서는 26.1%가 '접근성'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는 참여자의 73.6%가 거주지에서 가까운 문화센터·복지관·학교·주민자치센터 등을 찾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접근성 이외의 애로사항은 ▲교육시설(18.3%) ▲교육내용 및 유익성(15.8%) ▲참여자들과의 관계(9.2%)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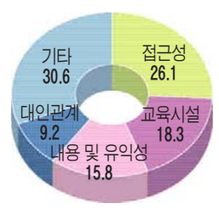
설문조사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측은 "취약계층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수강료 및 교통편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 프로그램 애로사항 (단위:%)



광주 '실버타운'에 퍼블릭 골프장

도시공사, 노대동에 2009년말까지 준공

노인들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인 광주 '빛고을 실버타운'에 퍼블릭 골프장이 건설된다.

광주시 도시공사는 연내에 남구 노대동 일대 40여만㎡의 부지에 9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 공사를 착공, 오는 2009년 말까지 준공한다고 3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131억원으로, 클럽하우스와 75타석 규모의 연습장 등도 시설할 예정이다.

이 골프장은 도심에서 10여 분 거리에 위치,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실버타운에는 골프장 외 노인복지관·문화센터·종합체육관·실버주택 등도 계획돼 있다.

특히 종합체육관에는 수영장·헬스장·테니스장·게이트볼장 등이 들어서며, 화초를 가꾸거나 조경 등을 할 수 있는 야외 영농체험장도 조성된다.

이외 노인복지관에는 노인들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서예·꽃꽂이·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근로자 종합복지관 착공

광주지역 근로자의 건강과 취미생활 등 복지 증진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건립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달 광산구 장덕동 하남산단 관리사무소에 106억원을 들여 종합복지관(총면적 6천100여㎡) 공사를 착공, 오는 2009년 2월 준공하기로 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지관에는 구인과 구직을 위한 상설 상담실을 비롯해 취업정보센터·회의실·도서관·전산교육센터·어린이집·식당 등이 들어선다.

또 근로자들이 틈틈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취미교실과 체력단련실 등도 갖출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5·18묘지 신임 소장 김용호씨

신임 국립 5·18민주묘지 관리사무소장에 김용호(58·사진) 광주지방보훈청 총무과장이 3일 임명됐다.

순천 출신인 김 소장은 순천고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순천보훈지청 보훈과장·광주지방보훈청 총무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종행 기자 golee@